

신앙 성장 시리즈 44

#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항로 찾기

NAVIGATING THE STORMS OF LIFE



한국오늘의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44

##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항로 찾기

NAVIGATING THE STORMS OF LIFE

© 2006 RBC Ministries,  
Grand Rapids, MI, Printed in USA.

인 쇄 : 2015년 11월 24일

발 행 : 2015년 11월 29일

저 자 : Gary Inrig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교 열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도서출판 소망

(02)392-4232

이 소책자는 RBC 가족의 일원인 디스커버리 하우스 출판사에서 발간한 개리 인릭(Gary Inrig)의 저서 『진북(眞北)』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개리는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과 달라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의 삼위일체복음주의자유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중입니다.

## 차례

발간사	4
서 문	5
진짜 북쪽(眞北) 찾기 (옵기)	6
이것 없이는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시험)	39

## 발간사



웁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동방 최대의 부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온 그가 전 재산과 하인들과 자식들을 다 잃고 심지어 아내의 저주를 받고 자신의 몸에 견딜 수 없는 피부병마저 들어 개들이 와서 핏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정도가 되면 대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겠지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끝은 두 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일편단심 웁의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발행인 김상복 목사**

## 서 문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떠신지요?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좀처럼 균형을 잃는 일은 없습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에 무언가 좀 더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책자는 아마도 당신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몇 번 이상씩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날을 마주하기 위해 그 무언가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지, 어떻게 다음 발걸음을 확신을 갖고 뻔 것인지 생각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개리 인릭 목사가 쓴 책 『진북(眞北)』에서 발췌한 이 소책자를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해주는 개리와 같은 친구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틴 디한 2세

## 진짜 북쪽(眞北) 찾기

**폭풍**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찾기 위해, 선원이 갖는 유일한 희망은 현재의 위치와 항해 방향을 알 수 있는 고정된 기준점을 갖는 것입니다. 초기의 항해사들은 익숙한 지형지물을 사용해가면서 육지가 보이는 항로를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육지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항로를 무모하게 밀어붙일 때도 그들은 여전히 고정된 기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면서 천체를 기준으로 삼는 항해술이 발전함에 따라, 항해사들의 주된 기준점은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술들이 그런 과정을 변화

시켜왔습니다. 육분의(六分儀)와 나침반이 전자항법기와 위성항법시스템(GPS)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고정된 기준점들은 24개의 인공위성입니다. 이 위성들이 신호를 보내면 수신기가 위도, 경도 심지어는 고도까지 계산합니다. 그 위성들은 매우 정밀한 고정 위치를 지닙니다.

인생 항로의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된 지형지물들이 수월하게 눈에 들어오는 비교적 익숙한 바다에 있건 수평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도에도 없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건 이것은 진실입니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지만 폭풍우 한가운데서는 이것이 절실한 필수품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욥의 이야기에서 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잘 보여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심오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글을 쓴 목표는 좀 더 소박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항해 원칙을 제시해주는 욥기의 핵심 주제 몇 부분을 보겠습니다.

##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욥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욥은 일반인이 아니라 예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가 심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악의 불가사의함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첫 부분은 훌륭하게 살아온 욥의 삶과 하나님이 만드신 강직한 성격을 가진 욥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1-5)

우리는 욥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는 듣지 못했고, 그가 살았던 지역(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혹은 요르단 남부)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밖에 모릅니다. 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혹은 관계가 있기는 했는지, 불확실합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도 역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위한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욥기의 처음 몇 문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받은 정보를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성격을 가진 정직한, “흠 없**

**고 청렴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욱기 저자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욱의 성격을 들어 사탄에게 도전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1:8). 이보다 더 귀한 단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28:28). 욱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었지만 내적 삶의 정직성은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욕은 또한 자산가였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하루 밤사이에 억만장자를 만들거나 텔레비전 게임쇼에서 순식간에 백만장자를 만들 것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은 욱이 가진 부를 묘사한 구절을 읽고 곧 바로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명단에 올릴 만큼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욱은 그 시대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성공적이고 번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번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들이 일곱이라면 사실상 번성한 것이 맞습니다. 칠천 마리의 양, 삼천 마리의 낙타, 오백 겨리의 (천 마리의) 소, 오백 마리의 암나귀에다 많은 종

들이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권력과 걸출함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1:3).

**그는 활발함과 박력, 참된 영적 삶, 가족을 향한 깊은 관심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 관해 들었던 세 번째 사실입니다. 그의 부가 그를 방종하게 하거나 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은 잔치 벌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잔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잔치는 욥이 그의 자녀들의 영적 도덕적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분명히 욥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잔치 후에는 자녀들을 위해 성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와 자녀들의 내적 삶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각각을 위해 따로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1:5). 이 과정의 자세한 세

부상환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확대해석을 해서 안 됩니다. 욥은 그의 부유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습니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인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욥은 도덕적 성실성의 기둥이며 영적 진정성의 표본이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욥은 번창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표현하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욥의 인생은 갈가리 찢어지는데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가 규모 있게 정성들여 세웠던 삶이 찢겨 나가면서 그는 바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독자인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욥의 삶을 보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살았던 땅 위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보

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중심 부입니다.

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보고와 함께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1:13-15)*

이것이 전쟁인지 아니면 잔인한 약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테러와 엄청난 경제적, 개인적 손실들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욥은 아마도 하인들을 잃은 것을 소와 양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눈사태는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1:16).*

욥이 숨고를 겨를도 거의 없이 두 번째 불행이 떨어  
집니다. 이번에는 자연재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  
난 번개가 치면서 불이 일어나 그의 양들과 목자들의 생  
명을 앗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쁜 소식이 가라  
앉기도 전에 나쁜 소식이 또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  
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17).*

이번 재난은 다시 인간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여러 무리가 습격하여, 욥의 낙타를 약탈해  
가고 목부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부족들 간의 이상한 동  
맹이 그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틀림없이 의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소식을 듣고 수습  
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환이 이번엔 훨씬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구절을 만납니다. 이 사환들은 나쁜 소식을 급박하게 전하느라 서로 걸려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1:18-19).*

욥이 받은 모든 소식 중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모두 앗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소식들과 합쳐져서 이번 소식은 욥에게는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 됩니다. 그의 성공, 안전, 삶의 태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의 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분 사이에 그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의 악몽 같은 가혹한 하루는 이제 겨우 1 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욥의 개인적인 건강과 행복이 표적이 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7-9).*

욥의 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극단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몰락하여 거지같은 존재가 되어 깨어진 질그릇 조각과 불타고 남은 재에 에워싸여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인 가족과 건강,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자신의 슬픔 때문에 상처를 입어 그를 지탱해줄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상 그의 아내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욱의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욱의 견해처럼 가치 있는 것이 욱에게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욱에게는 인생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욱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버리도록 위협을 받았지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욱이 폭풍우 속에서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북극성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욕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지형지물도 없이, 먼 바다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 속에 있다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다가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남편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녀를 어린 두 아이를 가진 과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렸던 미래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계속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욕기는 그 문제에 답을 얻도록 우리를 도우려하지만

이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소책자가 우리를 악과 관련된 문제에 대면시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철학적인 해결방법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설명되지 않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비극에 직면했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욥의 비극 초반부의 두 장면은 이 지구에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삶에는 근본적인 불가사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다른 관점에서 욥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는데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보이는” 삶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유에 주의하라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사탄의 공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극렬 반대를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결코 대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쟁 상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거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욥의 특별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지구상의 일이 천국의 서곡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전혀 듣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극적인 형태로 펼쳐지므로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지속적인 투쟁의 초점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불가사의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시도하는 많은 설명들이 엄청나게 근시안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

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욥 1:6-12).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경에서는 거의 듣지 못하는데 욥기는 홀쭉 본 무대 뒤의 주목할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는 않지만 사탄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나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계 12:10)입니다. 같은 구절에서는 대환난 시기의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는지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도전장을 던져 주도권을 잡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보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답은 불분명합니다. “저는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냥 모든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특별히 다니는 곳은 없습니다.” 이 대답이 옳을 대단히 믿는 주님의 즉각적 도전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옳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1:8).

위의 말씀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심오한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아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 속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가치와 영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한 명의 믿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개인을 위해 이 사실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평판을 간직해야 합니다(엡 3:10). 진실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탄은 패배당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부를 강타합니다. 당신은 사탄이 경멸하며 냉소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1:9-11)*

사탄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근거로는 섬김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의 충성과 나머지 인류의 충성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이의 추구라고 사탄은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개인적인 이의 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기본철학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사의한 존재인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빌 2:6-7) 분을 사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탄은 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에게 무언가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의 핵심 질문은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 부, 번영을 약속하는 설교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본능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그가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라고 하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까? 워렌 위얼스비는 그의 저서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잘 요약했습니다.



사탄의 비난은 예배와 미덕의 심장부를 잘라버립니다.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지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 받고 순종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에 이 투쟁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사탄이 충분히 받아 마땅한 멸시를 함으로 주님은 사탄의 오만불손함을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 다른 누구에게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욱이 시험 사례가 되도록 허락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1:12). 욱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훼손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밀한 시나리오가 다른 믿는 자들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

고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종종은 우리 자신의 평화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드라마의 제 2막은 1막과 거의 다름없는 사실상 재공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욱의 가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욱이 “여전히 그의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할 때 사탄은 욱에게 직접 접근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  
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  
지니라. (2:1-6)

이 허락을 받자 사탄은 욱의 건강에 맹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욱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버림받은 사람  
으로 전락하여 깨어진 도자기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헛되이 노력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참사를 일으킨 맹공격은 끝이 났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욕기 총 42장 중 두 번째 장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윈  
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처음으로 승리  
했을 때 했던 말처럼, “지금 이 승리가 마지막이 아닙니  
다. 마지막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아마도 시작의 끝부분일 것입니다.” 사탄은 시야  
에서 사라집니다. 사탄이 출연한 장면들은 욱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심오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욕기의 핵심으로 가는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비록 이들 극적인 사건들이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들 속에는 오래 남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욕의 경험들은 “우리가 겪는 폭풍우와 고통들은 더 큰 투쟁의 일부이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더 큰 우주적 투쟁의 일부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목표 달성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권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악과 관계가 있는지는 대단한 미스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욕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욕은 자신의 미약한 이해력이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지난

다는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탄은 사탄이 할 일을 하되 하나님의 통제 경계 안에서만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자율적으로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욥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2:5-6).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겪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종교적 죄의식과, 법률적 죄의식이 허약한 우리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주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거나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종교적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이 개인이 저지른 종교적인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욥의 핵심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신학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얼음보다 갑절로 차갑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욥이 무언가 끔찍한 결과를 겪을 죄를 짓고 그것을 깊게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기에 무자비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에 불가사의함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욕에게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이유가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습니다. 왜 나의 결장이 파열되었으며 나의 망막은 왜 박리되어 시력에 영구적 손상을 입게 되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의 암의 크기가 왜 줄어들었는지, 더 불가사의한 것은 왜 내 아내는 회복되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경건한 신앙을 가진 다른 친구들은 같은 병으로 죽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고난이 항상 개인이 저지른 종교적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타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고난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닐 수

도 있지만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23:10). 하나님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내면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가사의를 겪게 합니다.** 욥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 그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욥 3-31장). 그가 틀린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대화 결과 욥의 상황을 풀어야만 하는 문제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욥은 이 상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불가사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 내가 환난에 있을 때 나의 주된 관심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까?”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헤아릴 수 없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 자

제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투쟁하고 하늘을 향해 그의 질문을 포탄처럼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구하는 그의 필사적인 탐색을 인정하시고 심지어는 욥의 친구들의 엄격한 통설을 비난하기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42:7).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들의 불가사의 앞에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앞에 떨어진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재앙 같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욥은 항로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복극성이 있고 그는 변하지 않고 확실한 기준점을 통해 항해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항해 지도를 그리려면 3위1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통제 쪽으로 즉각적으로 항로를 조정합니다. 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런 위기들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위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만 위기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안 좋은 시간입니다. 욥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며 의지했습니다. 욥은 악몽 같던 하루가 끝나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벗겨져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1:20-22).*

욥의 반응에 감동받지 않기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의 반응은 공허한 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

는 것을 배웠던 사람의 숙련된 반응입니다. 욥은 폭풍의 무서운 괴력을 다 경험했지만 그는 폭풍이 아니라 북극성처럼 수평선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권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깊이 알고 있으며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기대되었던 경건한 말들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 속 깊은 존재로부터 나온 단호한 의지입니다.

간중의 2 라운드도 1 라운드와 놀랍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끝납니다. 이번에는 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그의 아내와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 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하니라(2:9-10).*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운명론적 체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에서 드러나듯이 욥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슬픔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들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통제하신다는 확신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그의 투쟁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만약 욥이 즉각적으로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확신이었다면 그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강력한 결론부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욥38-42장). 그런데 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권능, 그의 은혜, 그의 돌보심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욥이 얻은 궁극적인 답은 철학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는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어고 터끝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42:5-6).*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견해가 변하고 욥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 다. 그가 행하신 일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 다. 악의 불가사의함도 풀어주 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욥의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호기심을 채워 주기 보다는 그분에 대한 욥의 신뢰를 높이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뢰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 다.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고정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선하며 지혜롭습니 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은혜롭습니 다.

욥의 이야기는 강력한 진리를 우리가 납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찮은 생각들은 우리를 향로이탈이라는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옅은 믿음과 희망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19:25-27).*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옅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3위1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에 놀랍니다. 열린 무덤 앞에 서서 그분

의 권능을 인지합니다. 그의 임재를 개인화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확고한 방위표시이며 북극성이며 그가 자신을 표현한 말을 빌면 “광명한 새벽별”(계 22:6)입니다. 그는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 그 분이 우리의 고정된 기준점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것 없이는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현대**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급격하게 변하며 예측할 수 없는 대양을 해도 없이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도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멀리 항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확고부동한 기준점입니다. 그 북극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우리의 3위1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할 때는 확실한 기준점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밤하늘에서 북극성 찾는 법을 압니다. 그러나 북극성을 이용하여 내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북극성을 내 시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항해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육분의가 성경이라는 지식보다 내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분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사용법에 대한 가장 훌륭한 사례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적용 방법과 태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복음의 한결같은 주제는 주님의 삶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선택 방향을 가르쳐주었고, 그의 고난에 대해 미리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이끌었으며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 출발하실 때 예수님과 사탄의 만남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  
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  
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  
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  
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  
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  
들을 명하시니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  
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눅 4:1-13).*

인생 최대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완전히 발전적으로 살며, 완전히 인간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처럼 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무이한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성을 지니셨기에 그 시험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은 그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이 그분만의 유일무이한 인성을 드러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이 놀라운 대결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자신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음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결이 사탄의 기습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이 만남은 의심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튀어나온 매복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연이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주 예수님을 꺾어 떨어뜨리고 그 분을 자격미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굴복하였더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무자비하고 약삭빠르고 계산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탄의 가장 맹렬한 공격 아래서도

견고했던 예수님은 정당성을 증명했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입증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증명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진실한 성품은 그에게 백성들을 위한 대속자의 자격과, 그의 시험당하는 백성과 하나 되며 공감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님의 경우 시험은 패배를 초래하지 않았고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견뎌내었던 시험의 조건들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여러 세기 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을 때 그들이 심각하게 패배했던 광야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담은 완벽한 환경에서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었어야 했지만 실패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금식하며 지내는 40일 동안의 시련입니다. 분명히 그 기간에 몇몇 가지의 시험들이 있었으나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지고 거의 고갈되었을 때 받았던 마지막 세 가지의 시험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전혀 세상적인 보호 체제가 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의 첫 라운드 공격은 눈으로 보기에 명백하게 쇠진된 육체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눅 4:3). 사탄은 잘 훈련된 유혹자의 교묘한 언변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공격하거나 의심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논쟁을 위해 그 선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그러면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가정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 공격의 본질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제안 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그의 허기를 채우라는 유혹입니다. 주 예수님의 신체적 욕구는 우리의 육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후의 식사 초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행동으로, 그는 배고픔을 달랠 뿐만 아니라 적에게 그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유혹자의 치밀함까지 보여주는 더 깊은 단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벽한 동의하에 영원까지 그의 신성

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도록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그가 독자적으로 권능을 사용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만족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고픔 같은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지름길을 택하여 문제에서 아버지를 배제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설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네게 필요한 것, 너의 욕망을 우선으로 하라. 그것들을 만족시키라. 너 자신을 섬기라.” 섹스, 음식, 결혼, 돈, 즐거움, 소유물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 즉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만드신 경계선 안에서 이들을 충분히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우리가 욕망에 스스로 빠질 때,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한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이 거짓말의 핵심은 하와가 선악에 대한 지성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그녀 자신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된다는 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은 간결하지만 직설적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위장이 재촉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먹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그랬던 것보다 더 짧게 인용했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음식(혹은 내 몸과 그 몸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의 답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신 8:3). 그는 사탄에게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향해의 근본적인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라운드에서 주님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육신의 위치 변경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눅 4:5). 이런 일이 가능한 실재하는 장소가 없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환상적인 경험의 일종일 것입니다. 사탄의 선포는 그 대담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6절). 이 선포는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건 내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망상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한 권한도 적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30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귀가 세상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암시한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악한 세상의 제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상을 취하라. 세상은 네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 제안은 매혹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국은 합법적으로 주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의 재산을 되찾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성공입니다. 이것이 무슨 발상입니까! 그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호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사탄은 이 제안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매혹적일 것으로 생각했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 추종자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유혹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다만 다른 왕을 섬기기만하면 됩니다.

주님의 반응은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는 사탄의 주장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뻔뻔함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의 신뢰성을 조롱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도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눅 4:8; 신 6:16)를 인용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두 번째 항

해 원칙을 확립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적의 주장도 거절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3라운드는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한 바에 의하면 장소가 또 한 번 바뀌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만남을 정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누가복음의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누가복음 9장 51 절은 주님이 결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이끌어갈 사건들 속에서 사탄의 최후의 공격에 맞섭니다(눅 19장 이후). 그래서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펼쳐졌던 마지막 대결에 대한 일종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약 120m 아래로 기드론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성전 담벼락 꼭대기의 한 곳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들 앞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사탄 혼자만이 증인이 되는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악마의 제안은 분명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악마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4:9).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며 그의 시험에 버림목을 덧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사탄도 역시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4:10-11; 시 91:11-12 참조). 사탄은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만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가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하는 문맥에서 사악하게 뜯어내어 아버지로부터 멀리 돌아서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목소리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그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교묘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

다. 믿음 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수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까지도 수집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한 것 즉,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번영이나 혹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견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내 것이라고 선포하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방종한 생활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구절들을 문맥에서 무리하게 뽑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번덕에 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딱 부러지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12절).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6:16) 돌아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상입니다. 재발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진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의 성품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항해 원칙은 앞에 나온 두 원칙들과 일치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합쳐져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긴, 그의 승리로 끝난 저항은 그가 유일무의하고 지고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항해원칙들을 알려줍니다. 그 원칙들이 예수님의 삶을 안내했고 우리의 삶도 안내해줄 것입니다.

### **주 예수님의 사례가 보여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원 -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주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에  
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들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인생 항로를 잡아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

지 특별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을 향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떤 인간도 지니지 못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권위는 학식 있는 랍비나, 고풍적인 목소리, 또는 공직이 지니는 권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과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유일무이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조차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며 그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말씀이 최종 판결권을 가진 대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일에 같은 정도로 현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오

용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대응할 때 결코 이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뿌리 깊은 존경심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개인적인 선언서로 인용하며 자신의 사역을 정의했습니다(눅 4:16-21).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며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마 5-7장).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정죄한 것은 그들이 성경의 가치를 너무 높게 매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의 주는 분명한 메시지에 무지하고(요 5:39-40) 성경에 몇 겹의 전통을 덧발라 외피를 만들어 참된 의미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마 15:1-9). 예수님은 성경에는 가장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영속적인 권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7-20).

참으로,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요 10:35).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막 14:49)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사건들을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요 19:28). 그리고 부활 후 그가 사랑하던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펴고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32).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인도하



는 책이었고, 영적 싸움에서 그를 보호했으며, 무리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의 권세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역의 실행방침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 실행했고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하고 본질적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성경말씀대로 그의 삶을 구축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주님보다 덜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주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그보다 덜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농간이나 유혹에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원수를 수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너의 계기들에 의지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들, 직관들, 희망들이 우리에게 크게 말합니다. 그때그때 육

감적 도덕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태도는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불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살면서 그의 주인을 모방합니다. 그는 성경을 매일 매일의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항해도구로 봅니다.

**둘째, 인생항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훈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신명기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친숙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탄이 성경을 오용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씀에 대한 그의 존경심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신성한 저자가 의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적절하게 다루어 하나님 이 말씀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리의 진리를 말하도록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

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요 17:17).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 전개에 이끌려 당신의 길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의 행동거지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도덕적, 윤리적 원칙, 그리고 기도의 기본 원칙 즉 그리스도인의 핵심적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가슴과 마음으로 드러낸 계시의 진리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라고 권면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측정치를 읽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눈금 값만 보이도록 향해 계기를 조작하려는 항해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유

행입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 질문은 항상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 아래서 저자가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 후에 내가 신실하게 본문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으로 권위를 옮겨와서는 성경말씀을 단지 내 의견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항해사가 그의 계기를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듯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훌륭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생 항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훈의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신의 목표와 성경에 대한 지식의 목표는 성경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항해 계기들을 갖

고 있어도 눈금 값에 당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삶의 원칙을 간결하나 함축적인 말로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4)*

모든 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 형성되었고 지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삶을 향해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육분의입니다. 성경은 3위1체 하나님을 고정점, 즉 북극성으로 하고 그것을 수평선으로 끌어내려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게 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때로는 직접적인 명령들로, 그러나

더 자주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설명해줍니다. 성경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때로는 고통스러운 정도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은 내가 열망할 필요가 있는 결혼, 내가 추구해야 할 성격, 내가 피해야 할 행동, 발전시켜야 할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가야 할 곳을 지적해줍니다. 성경은 전 여정을 가치 있게 만들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내 앞에 마련해 주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항해도구가 될 때만 하나님이 이 지시하신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만 그의 뱃머리

방향들을 조심스레 계산하고는 그것들을 배 밖으로 던져 버리고서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이것 없이는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은 어떤 신용카드회사에 의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향해하는데 열중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항해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 및 헌금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받 는 사 람		H · P																								
우편번호	부 수	월	구독기간: 년 월 ~ 년 월																							
구 분	①신규 ②주소변경 ③부수변경 ④재신청 ⑤취소 헌금입금은행 : ( )은행																									
시리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청부수																										
시리즈	26	27	28	29	30	31	32	33	34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신청부수																										

후원안내는 뒤표지 참조